

장흥, 헛개나무로 지역경제 키운다

헛개사업단 창립… 2012년까지 30억 투입

재배시스템·체험관광 개발 年 100억 창출

장흥군이 간기능 개선과 숙취해소 등 약용효과가 타월한 헛개나무를 활용해 산업화에 밟았고 나섰다.

장흥군은 7일 군정 2층 상황실에서 전남도 천연자원연구원, 전남도한방 산업진흥원, 장흥군 버섯연구소, (주) 피엔케이, 장흥햇개농협조합 및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장흥햇개산업육성사업단(이하 헛개 사업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헛개사업단의 2010년 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해 정관승인, 입원선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완도 기초생활권 대상

담양 최우수·장흥 우수

완도군과 담양군, 장흥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평가한 결과, 완도군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22곳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완도군이 대상을 받았고 담양군은 최우수상을, 장흥군이 우수상을 받게 됐다.

/김자기 기자 dok2000@

글로벌 인재 육성 배움터 '우뚝'

신안 지도초등 개교 100주년 행사 성료

신안군 지도읍에 자리한 지도초등학교(교장 이홍상)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신안군 지도초등학교는 지난 4일 나연수 신안교육장, 김용배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동문, 지역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들의 학창과 바이올린 연주, 모교 발자취 동영상 상영,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개교 100년 기념탑(사진)과 송덕비 제막, 기념식수,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총동문회는 100년사 발간과 함께 본·분교 전교생에



게 후드티와 문구세트를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시계탑 건립 등 비용으로 1천여만원을 쾌척했다.

한편 신안군 지도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06년 6월 22일 지명사립학교로 개교해 98회에 걸쳐 7천 1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님기자 wncho@

■ 새 얼굴

"해태조합 최우수 명성 되찾겠다"

사홍 만 장흥수협 조합장



"40여 년의 수렵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직제개편과 예산절감 등의 경영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사홍만(58) 장흥군수협 조합장은 "부실조합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불용고정자산을 처분, 차입금과 연체대출금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 4년 임기 내에 해태(김)조합 전국 최우수 명성을 반드시 2천900여 조합원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흥 관선읍 출신인 사조합장은 지난 1973년 장흥군수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장흥수협 전무, 고흥 나로도수협 전무 등을 지냈다. 이번 보궐선거에 단일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가족으로는 부인 유형숙(56)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서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불필요한 규제 폐지 효율성 높일 것"

정태실 신안 임자농협 조합장



"실추된 농협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 취임한 정태실(61) 신안군 임자농협 조합장은 "업무 전반에 걸쳐 모든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농협 경영에 실질적인 혁신과 함께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나 규정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농협으로 만들겠습니다"고 말했다.

신안 임자농협은 지난 2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임자농협 이사를 두차례 역임했으며 토박이 농사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희순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님기자 wncho@

효성공인증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매기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 독서실 임대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 인근

-고시화원내 독서실 170평

-보1억5천만 원

(관리비 포함)

* 빌딩(임대용·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매기 19억

-보증금 1억6천만 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십시오.

금매물 즉시 증개

대인동심일부동산

☎ (FAX) 223-1772 월 011-602-2532

(광주동행 신분증·민인증 소방서증·etc)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 확인 된 곳.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 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 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로지·판매·임대·매매·임대

지역 소재지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영광군 일신면 4029/1218 34평 26평

고성군 대곡면 2977/900 28평 1천6평

영광군 대곡면 1564/4733 19평 4평

영광군 삼호면 일야 2436/738 7평5평 4평2평

시름면 일야 4950/1497 2평 1평

영광군 삼호면 일야 5290/10 5평 3평

영광군 삼호면 일야 1575/478 5평 5평

영광군 삼호면 일야 968/292 1억7천1평 1억7천1평

영광군 삼호면 일야 2046/618 1억8천2평 8천5평

영광군 삼호면 일야 7145/2161 23평 23평

영광군 삼호면 일야 19200/5808 2억 원천1평 1억7천8평

영광군 삼호면 일야 1587/488 1평2평

소리 보존회가 '우봉 둘소리'를 들려주고, 진도군 소포리 주민들이 강강술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후 목포수협의 중재로 가까스로 위관이 재개됐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끝에 서로 양보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목포지회는 얼음을 채울 공간과 고기 가 늘려 훠궈되는 것을 막으려면 삼자 크기가 중요하다며 기준 9cm 상자를 고집해 왔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고기 상자 높이는 선주와 중매인 간의 해묵은 싸움으로 끝이 보이지 않았으나 서로 조급히 양보해 원만하게 해결돼 위관 중단 사태를 막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여심 유혹하는 수선화

7일 함평 자연생태공원을 찾은 여성들이 활짝 핀 수선화에 피묻혀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43만 m² 규모의 이 공원 곳곳에는 60만 송이의 수선화가 꽃망

〈함평군 제공〉

목포 생선상자 높이 8cm로 합의

안강망 선주-중매인협회 내달부터 시행

수개월째 목포 안강망 선주들과 수산물 중매인간 마찰을 빚었던 목포수협 위관장 생선상자 높이 문제(본보 3월 3일자 1면)가 일단락됐다.

7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안강망 선주협회와 전국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 양측은 1cm씩 양보해 8cm로 최종 합의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는 최근 전국 중도매인 총회에서 막 잡은 고기의 신선도유지를 위해 얼음을 채워 상자에 담아야 하는 목포의 특수상 등을 설명하고 목포수협 위관장에서

만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1cm 낮추는 문제를 승인받았다.

이번 사태는 안강망 선주들이 선원 고령화로 30kg이 넘는 고기 상자를 창고에 넣고 빼는 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30여년간 사용하던 '4호 상자'(높이 9cm, 깊이 57cm 크기) 대신 7cm

로 낮춘 새로 만든 상자에 고기를 담아 위관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선주들은 실제로 지난달 2일 어선이 잡은 병어, 아귀, 송어, 조기 등 모두 5천여 상자를 새 상자에 담아 위관 장에 내놨지만, 중매인들이 이에 응

소리 보존회가 '우봉 둘소리'를 들려주고, 진도군 소포리 주민들이 강강술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또 보성군은 서예전, 영암군은 사진전, 진도군은 짚불공예전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8·29일 이틀간 하니움 관리공장 회랑에서 김관철 목공예가와 함께하는 '편백나무 목공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회순군 관계자는 "이번 도민체전을 지역의 문화와 역사로 알리는 문화체전으로 승화시켜 회순이 지향하는 '테라피 회순'의 기반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p